‘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노력

고창군, 지역관리위 회의… 6개 마을 지원사업 경과보고 · 추진 계획 논의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는 지난 29일 아산면 용계마을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와 군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논의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아산면 용계·독곡마을,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국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마을별 간담회, 주민인식증진교육, 습지 주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란 람사르 습지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직접 참여하는 도시(마을)로 환경부가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15.6.9. 우루과이)에서 제안해 채택된 람사르 협약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습지 주변지역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습지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현명한 이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원 속에 고창 운곡습지, 제주시 동백동산, 창녕군 우포늪, 서귀포시 물영아리 오름, 인제군 대암산 용늪 등 5곳의 후보지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람사르 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서비스 보전방안 수립, 습지의 복원 및 관리방안, 관할 지역 내 습지를 위한 통합적 공간 토지이용계획, 습지가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센터 설립, 지역위원회 설립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7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어린이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

어제 오수초 · 오늘 관촌초… ‘뽀빠이와 담배쟁이 부르터스’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 ‘건강미남 뽀빠이와 담배쟁이 부르터스’ 뮤지컬 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공연은 30일 오수초등학교와 31일 관촌초등학교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위주의 금연 뮤지컬 공연을 통해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흡연중독을 지혜로운 금연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친숙한 이미지의 캐릭터들과 직접 대화하며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과 접목한 알찬 내용으로 꾸며진다.

군 의료원 관계자는 “금연은 어려서부터 지켜야 할 습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상반기 9개 학교, 하반기 7개 학교에 공연할 계획”이라며 “공연매체를 통해 흡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금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로컬플러스

순창 남계파출소, 유치원 시설 사전점검 교통사고예방 활동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에서 관내 유치원에 진출 선제적 시설점검으로 교통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에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차량규제봉 설치장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교육담당자에게 아이들에게 교통사고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필요시 남계파출소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사고발생 우려지역을 면밀히 파악 후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및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남원 농어촌공, 저수지 안전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관내 76개 저수지에 대해 ‘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76개로, 1종 시설물(30만t 이상) 14개소, 2종 시설물(30만t 이하) 62개소를 지사직원들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저수지 제방, 방수로, 취수시설 등 시설물 상태를 일제점검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근 지사장은 “남원지사는 현재 2개 시·군 22읍면동 지역에 6,117㏊의 수혜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해 저수지 시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용배수로 정비, 준설작업 등 안전 영농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지사는 “집중호우시, 저수지 붕괴나 배수장 가동중단의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4월 초에 자체적으로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전통장 문화 학교’ 운영

서울 7개 초 · 중과 업무협약… 4월부터 1박 2일 일정 7회 진행

순창군이 우리 고유의 전통장(醬) 문화를 도시 학생들이 체험하고 건강까지 챙기는 ‘전통장 문화학교’를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장 문화학교는 순창군과 서울시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전통장(醬)과 발효 문화에 대해 체험을 통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기능인들과 함께 전통장을 직접 담그고 배운다. 또 담근 장은 순창에서 6개월 이상 잘 숙성해 각 학교로 보내져 급식에 사용된다. 아이들 건강까지 챙기는 실속 있는 사업이다.

관련해서 순창군은 30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 소재 7개 초·중학교와 정통장문화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서울시친환경급식 담당관 및 학교장 등 관련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순창군과 각 학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전통장문화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호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전통장문화학교는 4월1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5월1일까지 7개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7회 운영한다.

순창 전통장 담그기 행사

전통장문화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순창을 직접 방문해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기능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기능인들이 그동안 담근 각종 장아찌와 쌈장, 된장, 고추장을 사용해 차린 집밥을 맛보게 된다. 이를 통해 가족과 전통 식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또 기능인과 함께 고추장,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달이면서 전통장에 대한 가치를 배운다.

2일째는 친환경 농장을 방문해 가마솥에 밥짓기, 쌈채소 따기, 두부만들기 등을 통해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식사를 해결하는 생생한 현장형 체험이 진행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전통장 문화학교가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이들의 뇌리엔 평생 남을 만큼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며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 다시 자녀에게 전통장과 순창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전통장문화학교 이외에도 장독대 분양행사 등 도시민이 직접 순창을 방문해 우리 전통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임실군, 18 종류 한 번에 발급 · 열람… 민원인 편의 제공

임실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류를 한 번에 발급·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일사편리’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등의 등기정보를 포함한 완전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해 정보 확인을 위해 군청과 등기소를 찾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비용은 종합형 1500원, 맞춤형은 1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 열람은 무료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효율적 재산 관리 및 기관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오류정비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군청, 각 읍·면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박차

추진상황 보고회

남원시가 2016년 1/4분기가 지나는 시점에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30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지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이 시장은 2017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예산확보에 노력해주길 강조했다.

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100대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여 내년에 국비 1,269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남원예촌 조성사업, 문화유산도시 기반구축 등 도시브랜드를 높여주는 사업은 사업내용을 더욱 알차게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구체화시킬 것을 강도 있게 주문했다. 특히,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도심권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거론된 중점사업 위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쟁점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읍, 새봄맞이 클린순창 활동

순창읍 사회단체들이 지난 29일 순창읍 일원에서 새봄맞이 클린순창 만들기 활동을 추진해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대한적십자사 순창군지구협의회 등 4개 사회단체다. 읍사무소 직원과 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읍내 골목 및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음료수 캔과 빈병, 과자봉지 오물 등을 집중 수거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오수환 순창읍장은 “새봄맞이 클린순창 만들기 행사에 동참한 각 사회단체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순창읍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읍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폐비닐 수거체계 확립의 5가지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순창=구인규기자

고창군, 유네스코 가입학교 학생교육사업 추진

초 · 중 · 고 17개 교 대상 4월~11월까지… 핵심지역 현장체험 · 환경정화 · 공모전 개최 등

고창군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생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유네스코학교로 가입된 가평초 등 지역 내 1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초 지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총 17개(초등 8, 중등 3, 고등 6) 학교가 신청했다.

접수된 학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5개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현장체험활동, 환경정화활동,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이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미래 고창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등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학습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국내·외 학생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성 함양과 폭넓은 사고력 향상을 꾀하고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 인권, 상호존중, 환경보존, 지역문화 유산보존,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교육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네스코 학교가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학생교육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이 생태체험활동과 환경정화활동 등 생물권보전지역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물 다양성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얻고 이를 다시 생태계에 돌려주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제대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유네스코학교로 가입된 가평초등학교 등 지역 내 1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농기계 휴일에도 빌려가세요”

임실군 중부임대사업소, 4월~6월 휴일 근무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수요가 높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부임대사업소 휴일 근무를 실시한다.

군 농기센터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편의를 위해 6년 전부터 권역별로 4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총 22종 744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고가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경영손실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권역별 중점 교육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를 통한 농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는 조작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다”며 “작업 전 사용요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공용 장비인 만큼 유지관리에도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063-640-4513)는 농번기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작업 3일 전까지 예약을 마쳐야 기계를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군 농기센터는 올해 보리 수확용 보통형 콤바인과 옥수수 조사료 수확기를 구입하는 등 농작업 대행 작업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영농 현장의 긴급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8572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